

군복에 대한 연구

—무기발달과 전술 변화를 중심으로—

경원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 한 순 자

目 次

I. 서론	3. 군복의 변천
II. 본론	III. 결론
1. 군복의 특성 및 변천 개요	참고문헌
2. 무기의 발달과 전술의 변화	ABSTRACT

I. 서론

인류는 개인 또는 그룹을 과시하고 그 권위를 통치권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의복을 이용하였다. 그 사용목적은 주로 제복에 의하여 달성하였다. 제복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행할 수 있어서 구성원 간에는 계급이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뱃지나 기장등이 보충되어 역할이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스타일, 색채, 재질과 옷을 입은 상태를 통하여 소속이나 계급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구성원들에게는 일종의 우월감, 단결력등을 갖게 한다. 제복은 지배계급의 권력을 표시하는 복장으로 권력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새롭게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제복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이다.¹⁾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제복은 경찰복과 군복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군복은 대외적으로 소속, 계급, 역할 등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제복의 용도는 동일 집단

구성원 간에 정신적인 단결심을 배양하는데 있으며 용기, 명예심, 애국심, 그 밖에 덕망을 중요시 하는 어느 단체의 일원이라는 자랑스러운 감정을 주어 그 구성원간에는 제복을 통하여 소속감, 단결심, 명예심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요소는 혁명과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혁명은 한 국가내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전쟁은 당사국과 주변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전쟁은 일반 패션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군복은 전쟁의 형태와 무기의 발달에 따라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군복의 변화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형태, 소재, 색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시나 평화시에 군복의 의미가 어떻게 변용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양복식에서 전쟁의 형태 즉 무기 발달 과정에 따라서 군복의 형태와 군복의 색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무기의 변천과 전술

1) Lawarnce Langner저, 박동준역, 복장의 심리, 유신문화사, 1992, p.66.

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전투용 군복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군복의 특성 및 변천개요

군복은 전투용과 의전용의 개념에서 두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투용은 전투력을 위한 기능성과 방어성을 목적으로 입었고 의전용은 계급을 통한 위계의 표현과 장식성을 목적으로 입었다.

인류의 초기 전쟁에서 전사들은 몸이나 얼굴을 이상하게 또는 무서운 모양으로 색칠하거나, 여러 가지 장신구를 붙이거나, 가장 강한 동물을 상상하게 하는 가죽의복을 입거나 하였는데 이것은 적에 대한 위협과 자기편의 과시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위협주의는 근대전에 있어서도 프러시아의 해골 마크 輕騎兵隊나 전술적인 히틀러 친위대의 복장, 동구권 국가들의 군복과 군장등에서 볼 수 있다.²⁾ 이런 복장은 적에게 공포심을 자극하여 방어력을 마비 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인간은 처음에 인간 자체의 힘과 단순한 연장 정도를 무기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창과 방패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후 칼, 화살등 살상무기를 사용하면서 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면서 갑옷이나 투구등을 사용하였다. 갑옷이나 투구는 전투복으로써의 소재와 디자인의 발전을 이루었다. 군복의 장식성은 신분의 표시와 계급의 위계, 그에 따른 전술 효과와 기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복은 전술개념과 무기체계와 전략에 연계되어 디자인된다. 인간은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무기의 발달을 가져왔고 한편으로는 그 무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왔다. 그 수단의 하나가 군복으로서 군복의 변화는 무기의 발달과 매우 밀접하다. 로마, 페르시아, 십자군, 몽골족의 원정은

무기, 전술, 군복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8세기이후 세계 군복디자인의 커다란 변화는 워털루전쟁과 보아전쟁, 그리고 1, 2차대전으로 획이 그어진다. 이 3개의 전투에서 무기의 발달로 군복색의 변화, 형태, 재질등의 변화가 확실해 졌다.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워털루전쟁(1815년)은 군복에서 색의 상징을 표현한 마지막 전쟁으로 볼 수 있다. 웰링턴의 지휘하에 있던 영국군은 빨간색,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감청색, 블뤼허의 프로이센군은 검정색으로, 워털루 벌판은 원색의 싸움이였다.³⁾ 즉 군인의 숫자가 상대를 압도하는 중요한 이 시대의 군복은 강한 원색을 사용하였다. 이는 과시용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경계색이다. 또한 총의 발사 방법과도 직결된다. 뒤에서 탄창을 긴꼬챙이로 밀어 넣어야 하는 이 시대의 전장식 총은 서서 발사하기 때문에 적에게 그 모습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었드려 사격할 수 있는 후장식 총이 처음 실전에 등장한 보아전쟁(1899~1902년)때는 사정이 바뀌어 숨어서 포복 습격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였다. 따라서 빨간색의 영국군 군복은 기습 공격을 노리면서 아프리카의 황토색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숨어서 싸우기 편한 칙칙한 색과 짧고 간편한 형태가 필요하였다. 이후 국방색은 흙이나 수풀과 비슷한 카키색과 진초록으로 통일이 되었다. 이 단색의 군복은 2차 세계대전 때 진일보하여 디자인 혁명을 겪었다. 자동화와 기관총을 사용하면서 처음 이탈리아군대는 아예 수풀속에 섞여 보이는 위장 무늬를 디자인하였다. 숨어서 싸우는데는 최고의 아이디어였다. 바로 독일군이 모방하여 유명한 위장무늬 군복을 착용하였다. 나치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위장 군복을 전 유럽전선에 내놓아 성과를 올렸다. 미국도 재빨리 위장무늬를 내놓았다. 지금은 일부 구 공산권만 제외하고 세계의 군대가 위장무늬 전투복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미

2) Ibid., p.69.

3) 플레툰, (주)호비스트, 17호 1996. p.92.

4) 조선일보, 1996. 3월.

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삼아 지형과 숲의 색깔, 계절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편타당한 최대공약치를 뽑아낸 무늬의 위장복을 연구하고 있다.⁴⁾

이로써 군복의 형태와 색, 구조는 전쟁의 형태와 사용하는 무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무기의 발달과 전술의 변화

초기 인류는 수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돌을 이용한 찌르는 창, 던지는 창 또는 화살의 상징으로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석기시대까지 인간들은 아직 화살은 발명하지 못하였다.⁵⁾ 그러나 신석기시대 초기, 약 1만년 전에 “무기기술의 혁명(Neolithic Revolution)이 일어났다. 네 종류의 놀랄 만큼 강력한 신무기가 등장하였다. 활, 투석기, 양날 단검, 그리고 철퇴가 그것이다. 투석기, 양날 단검, 철퇴는 이전의 무기를 정교하게 개량한 것이었다. 철퇴는 몽둥이로부터, 양날 단검은 창날 축에서 그리고 투석기는 투승(投繩, bolas)이 발전한 것이다.”⁶⁾ 창을 던지는 지레 장치도 간접적으로는 투석기의 선행 형태였을 것이다. 신석기시대에 활이 최초로 보이는데 활은 인류 최초의 기계라고 할 수 있다. B.C 2000년대 이후 구리 무기에 뒤이어 청동제 무기를 제작하였다.⁷⁾ 점차 고대인들은 석제무기를 청동제 무기로 대체하였고 금속갑옷, 금속투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대에 이르러 전투에서 활을 많이 사용하였고 전술로는 요새를 이용하는 축성법, 공성법이 생겼고, 언제든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장집단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장거리 작전에 필요

한 병참술, 적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식량 공급방법, 전술에 가축을 이용하는 방법등을 터득하였다.⁸⁾ 화약무기 이전에 전술의 예로 축성에 의한 요새화를 볼 수 있다. 요새나 성벽은 방어와 공격의 목적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전술으로써 국경을 따라서 세워졌으며 전략적 방어진지로서 건설, 유지, 보급, 주둔 비용이 컸으나 전시에는 공성 망치, 공성 사다리, 공성 탑, 수갱(塹坑)의 흔적이 있을 뿐 전술상의 발전은 없었다. 각각의 문화권에서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던 농경민들과 비교하여 유목민들의 생활방식은 전투와 무기에 여러가지 차이가 있었다. 원거리 지역 간의 전투는 원정에 말이나 동물들을 이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전차를 이용하고 전투대형과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다. 6세기에서 8세기초까지 서유럽에서는 왕국 계승을 위한 싸움들이 있었고 그 결과 왕들은 봉토를 가지고 계약한 군대에 의하여 전쟁을 하는 봉건제도가 형성되었으며 기사들은 말을 타도록 요구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경작 조건에서는 기병의 역할을 할 만한 말의 생산과 기사의 양성이 어려웠으므로 대체로 게르만인, 노르만인의 호전적인 전투와 보병중심의 전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9세기에 이르러서 봉건기사에 의한 기병들이 쇠사슬 갑옷을 입고 마상에서 방패를 들고, 움직이면서도 방패와 창은 물론이고 칼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⁹⁾ 11세기의 전투는 유럽의 십자군 전쟁과 몽골족의 원정이 대표적이다. 두 전쟁 모두 원정을 통한 전쟁으로 군수와 효율적인 전투를 위한 기병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보병 중심의 밀집대형 전술에서 기마병에 의한 초생달형 전술과, 속전속결의 기동전이 발전하였고,

5) John keegen저 유병진역, 세계전쟁사, 까치, 1996. p.179.

W. Reid, Arms Through the Ages, New York, 1976, pp.9~11. 재인용.

6) Ibid., p.179.

H. Breuil and R. Lautier, the Men of Old Stone Age, London, 1965. p.72. 재인용

7) Ibid, p.196.

B. Kemp, Ancient Egypt. Anatomy of a Civilisation, London, 1983, p.227. 재인용.

8) Ibid, p.203.

9) Ibid, p.411.

효과적인 발사 기술, 바퀴를 전쟁에 응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과 전사의 상호의존 관계가 밀접하여졌다. 한편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식의 밀집대형 맞대결 전술과 이슬람의 치고 빠지는 전술,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기민한 마상 전술이 서로에게 익혀지기도 하였다. 13세기의 마상 창시합 형태가 타타르족에서도 보이는 반면 서유럽에서는 그들의 가벼운 무기와 갑옷의 장점을 따르게 되었다.¹⁰⁾ 14세기 중반부터는 전사의 빛나는 갑옷은 전장에서 칼끝이나 화살의 위협에 대처하기 보다는 마상 창시합에서 상대방의 장창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써 말을 탄 기사들에게 보다 무겁고 튼튼한 판금 갑옷이 입혀졌다. 유럽의 기사는 15세기까지 멋진 판금갑옷을 입고 말을 탈 수 있는 신분을 상징하며 판금 갑옷은 호화로운 옷보다도 명예를 대신할 수 있는 복장 형태였다. 이때 서유럽의 무기는 주로 양날 형태의 장칼, 장창 형태였으나 13세기 몽골족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의 영향으로 무기가 점차 경량화 되었고 마상의 갑옷 형태도 이에 따라 가볍고 편안해지기 시작하였다. 14세기부터는 화약무기의 발달로 기병의 역할과 갑옷의 형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였다.

전쟁무기로 銃火器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가죽이나 금속의 갑옷을 사용하여 무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다양한 기술과 세공법등이 요구되었다.

1326년경 최초의 화약무기가 출현하여 14세기에는 계속적으로 화약무기가 개발되었고, 15세기 후반 대포가 출현하면서 이들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용도로 판금 갑옷이 출현하였다.¹¹⁾ 16세기 초까지는 발사무기인 쇠뇌, 장궁, 소화기등으로 무장시켜 배치한 창병들은 개활지 전장에서 기병대와 싸우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점차 화약무기인 총기의 발달로 이들 갑옷은 갑옷 자체의 무게와 총화기의 출현으로 전쟁의 형태가 바뀌면서

불편하고 전쟁 수행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중세의 군복 형태로만 남게 되었다.

16세기까지 전쟁의 형태는 밀집대형으로 보병, 기병 위주의 전술을 실시하였으나 점차 전통적인 공격을 분쇄할 수 있는 대포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사무기로 싸우는 것은 샤를마뉴 시대 이후 유럽의 전쟁을 주도하였다. 이 전쟁의 형태에서 명예를 중시하던 기사 계급의 중무장기병들의 후손에게는 품위에 관계되는 문제였다. 기병들은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 잔등에서 창끝을 겨누어 자신들에게 맞서서 위협을 감수하는 보병과 싸우기를 원하였다. <그림 1> <그림 2>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정면에서 당당히 대결하는 전투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비겁하게 느껴졌다.¹²⁾ 즉, 그들은 방어벽 뒤에 있어야 하고 방어벽은 발사무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되므로 기사나 기병들은 말에서 내려 화약무기의 기술을 익혀야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명예에 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서 전장에서 화약



<그림 1> 15세기 마상의 기사
(Arms & Armour. p.126)

10) 플라톤, (주)호비스트, 1996, 12월, 18호. p.62.

11) John Keegen저, op. cit., p.290.

12) Ibid., p.425.



〈그림 2〉 15세기 전장의 장면.

(Arms & Armour, p.131)

무기나 총기의 사용은 잠시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16세기의 전사 루이 드 라 트르 무유의 전기 작가는 “전장에서 그러한 화약 무기들이 사용된다면 기사의 무기 다루는 기술, 대담함, 군기, 명예에 대한 갈망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고 하였다.

전통적인 기사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중반에는 대포뿐만 아니라 소형화기들이 전장에 투입되었다.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뇌관에 천천히 불이 붙는 메커니즘을 가진 화승총과 대포는 효율적인 무기였으며, 후자는 300~400m 거리 밖의 갑옷을 꿰뚫을 수 있었다. 이로써 보병들의 가슴받이는 방어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갔다. 기병들이 입는 갑옷 전체가 그런 처지가 되었다. 16세기 말에 이르자, 갑옷은 더 이상 착용되지 않았으며 기병은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잃어가고 있었다. 즉 스위스의 창병들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공격을 막아내는 적이나, 머스켓 총처럼 확실하게 기수를 땅에 떨어뜨리는 무기를 가진 적을 상대하게 될 때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따라서 사회적 우월성을 유지하려는 기사계급의 권리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하에서 군대의 조직, 화약기술, 요

새의 축성술, 군복의 형태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화약무기의 발전은 기존 가치에 의한 질서유지와 성능이 좋은 새로운 무기의 수용을 두고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대포의 화력과 이동성은 계속 발전하여 17세기가 끝날 무렵이 되자, 무기는 가벼워져서 전쟁터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정도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머스켓 총의 화력과 사용법도 발전하여 연속 발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총기의 발전은 전쟁의 형태와 전술을 바꿔게 했으며 그에 따라 18세기에는 군사훈련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화약무기의 사용은 총기를 다루는 법이나 전투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동작과 훈련이 필요하였다. 또한 동시발사가 요구 되는 총기의 특성상 총기병들은 발사 순간이나 목표물을 개인적으로 정할 수가 없으므로 그에 따른 훈련도 필요하였다.

17세기 말에는 유럽의 모든 군대가 머스켓 총에 총검을 새로 부착하였다.¹³⁾ 전장에서 중요한 전투요원은 보병과 포병으로서 무기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고, 알맞는 전술을 위하여 군사훈련이 필요하였다. 17세기중반(1668) 프랑스의 루이14세는 메스(Mets)에 포병과 공병을 위한 군사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¹⁴⁾ 그 결과 18세기에는 훈련, 규율, 체계적인 전술, 과학적인 사격술 등이 전세기와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다. 이 때의 전쟁 형태는 군대의 3가지 요소, 즉 머스켓총을 가진 보병과 대포를 가진 포병, 기병대의 서로 다른 특성들이 비정상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전장은 군복을 입은 머스켓 총병들이 밀집대형으로 연속사격을 하고 대포의 공격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기병들을 쫓거나 쫓김을 당하면서 헤가 저물면 처음과 같은

13) Ibid., p.478.

14) Ibid., p.482.

전열을 정비하여 퇴각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형태는 살상의 위협은 적었으나 전쟁의 승패를 가리기 어려웠다. 이에 18세기 말에는 전쟁에서 승패를 분명히 하려는 정책으로 유럽의 군대는 점차 전통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전사민족을 용병으로 선발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헝가리에서는 몽골족의 후예인 마자르족 경기병(輕騎兵)인 후자르(Husser)를 그 밖에 북아프리카의 주아브(Zouave)인, 보스니아의 무슬림, 티롤의 예거(Jager), 펀자브의 시크(Sikh) 네팔의 구르카(Gurkha)등으로 19세기까지 정규군과 더불어 외인부대를 구성하여 특별한 성과를 남겼다.¹⁵⁾ 용병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훈련과 통제가 필요하였는데 이에 그들을 위한 군복이 필요하였다. 유럽에서의 군대는 시대에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사(warrior), 용병(mercenary), 노예군(slave), 정규군(regular), 징집병(concript), 민병 곧 시민병(militia)의 형태로 나누었다. 이러한 군사제도에서 군복은 다양한 계층의 통제와 훈련에 필수적이였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은 의용군 개념의 시민병이 생기면서 기존의 귀족계급과 군사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1914년 무렵의 유럽 사회는 새로운 문화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군복무가 모든 신체 건강한 남자들의 의무이며, 동시에 국가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군복무는 시민의 덕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 때부터 사회적 지위에서 전사와 일반인 사이에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두는 것은 뒤떨어진 편견이라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대다수의 징집병 혹은 지원병이 구성되어 훈련되는 과정에서 통일과 위계, 소속을 나타내는 군복들이 필요하였다. 군복을 입은 모든 젊은이들은 같은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군사제도에서 다양한 계층의 젊은이들이 훈

련되었다. 군복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신분의 간접적인 상징이 되었고 군대를 증명하는 뱃지나 문장등은 자랑거리였다. 용병과 정규 용모병은 모집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예속의 형태로 간주되었다. 여기에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능력있는 장교로서 지휘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중산층 출신의 능력있는 젊은이들에게 신분의 변화와 새롭게 사회적 기반을 갖춘 장교로서 지휘와 자신의 신분을 표현 할 수 있는 군복이 필요하였다.

무기는 15세기말 대포 혁명이 전술의 혁명을 가져왔고, 그 총기의 계속적인 발달은 16세기의 화승식, 17세기의 부싯돌식 머스켓총, 1850년대에 라이플 소총, 1866년 후장식 소총, 1884년에 연속 발사의 기관총, 1914년에는 후장식 소구경 라이플로 발전 되었고¹⁶⁾ 다시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세계는 탱크, 항공기등 가공할 무기로 변화하여 마침내 오늘날의 핵무기로까지 개발되었다. 이러한 가공의 살상 무기들은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나 세계는 여전히 전쟁의 망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시대를 통하여 물질문명의 발달과 군사제도의 변화는 전쟁의 무기와 그에 따른 전술의 변화를 가져왔고, 각 시대의 복식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았고 군복 자체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이상의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군복의 변화를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3. 군복의 변천

고대의 이집트 군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갑옷도 입지 않았고, 맨가슴을 그대로 드러내고 머리에 투구도 쓰지 않은 채, 조그마한 방패만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다. 신왕국 말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파라오만이 갑옷을 걸친 모습을 볼 수 있다.¹⁷⁾ 전

15) John Keegen저, op. cit., p.484.

16) John Keegen저 op. cit., p.442.

17) John Keegen저, Ibid., p.196.

사들이 갑옷을 입지 않고 싸움에 임한 것은 외부 침략자와의 싸움이 없었고, 금속의 부족, 안정된 계급사회에 의하여 가까아서 몸을 부딪혀가며 싸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호전적인 고대의 아즈텍인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매우 발달한 활과 화살, 창과 아틀라틀(atlatl)을 이용하였다. 그것은 칼날에는 날카로운 흑요석이나 석편이 박혀 있었으나 살상용이 아니고 상해용이었므로 전사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으로 누빈 갑옷을 입었다. 15세기 스페인 정복자들도 이들 무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강철 가슴받이는 너무 덥고 비효율적이므로 면 누비 갑옷을 입었다.¹⁸⁾ 가장 보편적인 전투 복장은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투구와 가슴받이가 달린 조끼 형태의 갑옷이었다. <그림 3>



<그림 3> 14세기 일반적인 갑옷
(Arms & Armour. p.73)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초기 전투 복장은 자연 발생적인 방어 형태의 가벼운 복장이었으며 무기의 발달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접촉으로 보편적인 전투복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쇠비늘이 붙은 소매달린 튜닉 종류, 금속판이 달린 천 조끼, 무기와 부속품을 장착시킬 수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버클이 달린 가죽 벨트를 착용하였다.¹⁹⁾ 이때의 무기는 도끼, 창, 방패, angon 또는 갈고리가 있는 창이었다.

카롤링 왕조 시대의 병사들은 튜닉위에 가죽이나 빨로 덮힌 조끼의 일종인 동체 갑옷을 입었다. 이 갑옷은 머리를 감싸는 coif에 연결되었고 헬멧이나 투구 밑에 입었다. 형태와 재료의 변화와 함께 이 갑옷과 투구는 11세기까지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병사들은 반부츠를 신었고 다리는 호즈 또는 끈이 잘린 sock로 감쌌다. 얼마 후 그들은 가죽 혹은 금속 정강이받이로 다리를 보호하였다.²⁰⁾

11세기 말, 봉건제도에서 군대의 새로운 젊은 기사였는데 이 기사들은 귀족계급에서 모집하였다. 12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들의 신분은 독특한 표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말을 타고 훌륭한 갑옷을 차려 입는 것이었다. 즉 시민복이었던 bialud 위에는 기사들은 일찌기 Caroling왕조 치하에서도 입혀졌던 갑옷으로 마직이나 질긴 가죽으로 만들고, 빨이나 금속으로 보강을 한 jerkin을 입거나, 7세기의 아시리아인들이나 로마인 등이 입었던 것처럼 못으로 조인 고리와 사슬로 된 쇠사슬 갑옷을 입었다. 무장하지 않은 갑옷은 앞뒤에 트임이 있어서 말타기에 편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 옷의 두자락은 허벅지에서 끈으로 묶거나 버클로 매어서 마치 호신용 치마 같은 역할을 하였다. 칼을 매는 수대는 bialud위에 찼다.²¹⁾ 쇠사슬 갑옷은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coif를 형성하였

18) John Keegen저, Ibid., p.167.

I. Clendinnen, Aztecs, Cambridge, 1991, p.81. 재인용.

19) David Edge & Rene Miles Paddock, Arms & Armour of The Medieval Knight, Bison Group, 1995. p.56.

20) Boucher Francois, 20,000 year of Fashion,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987. p.161.

21) Boucher Francois, Ibid., p.187.

으나 얼굴의 윗부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이 위에 cap을 덧썼는데, 여기에 코가리개, 나중에는 앞챙등이 붙게되어 그 형태가 다양하여졌다. 쇠사슬 갑옷은 1100년 경에도 이미 입혀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웃은 십자군 활동 동안 많이 개량되어 동양식으로 정교한 사슬식 갑옷감을 사용하여 보다 가볍게 되었으며 천과 가죽으로 안을 처리한 사슬 양말과 장갑도 갖추게 되었다. 사슬갑옷은 12세기 중엽에서 14세기 중엽까지 착용되었다. 13세기 말에는 딱딱한 쇠조각이나 쇠판으로 사슬갑옷을 보강하였다. <그림 4> <그림 5>



<그림 4> 14세기 쇠사슬 갑옷
(Arms & Armour. p.77)

기사들은 쇠사슬 갑옷 위에 소매가 없거나 짧은 소매가 달린 천으로 된 surcoat인 문장의의를 입었다. 발에는 가죽신을 신었다. 기사를 대동하거나 기사를 모시는 귀족의 시종들도 輕騎兵隊를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보다 단순한 방어복을 입었다. 보병들은 broigne나 gamberson을 입고 모직, 가죽 혹은 금속 cap을 썼는데, 쇠사슬 갑옷이 개량되어 기사들이 broigne을 입지 않게 된 12세기 말에는 이들은 특히 broigne를 많이 입었다.



<그림 5> 15세기 완전갑옷(Full plate Armor)
(Arms & Armour. p.111)

십자군은 이와같은 군복 위에 유연한 아랍식 가운을 걸쳤는데 이는 금속제 갑옷에서 빛의 반사를 가리기 위함이었다.²²⁾ 헬멧 위에는 두꺼운 금사로 자수된 kuffish를 감았다. 헬멧의 가죽가리개는 가볍고 유연한 천 조각으로 바뀌었다. 그때까지도 높이 치켜진 안장 외에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던 말들도 화살에 대비하고 장식에 위한 길고 유려한 덧옷을 입게 되었다. 십자군들이 동방으로부터 들여온 것 중의 하나는 방패에다가 문장을 그려넣는 일로써 이것은 처음에는 글씨를 모르는 자기편 군사를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유행으로 변하였으며 나중에 마상시합을 통하여 확고한 전통이 되었다. 이 문장 장식의 부너와 문장 기술은 귀족이나 기사들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다.²³⁾ 회교국의 군주들은 11세기 전에 이미 문장복을 입었다.²⁴⁾

기사의 문장은 그의 방패, 헬멧과 외투에 그려 넣었다. 전쟁중의 기사들은 헬멧 꼭테기를 깃털이

22) Blanche Payne지, 이종남 외 3인역, 복식의 역사, 까치, 1994. p.185. 210.

23) 백영자, 유효순 공저,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4. pp.204~206.

24) Blanche Payne지, Ibid., p.185.

나 보석을 박은 백로 깃털로 신분표시용 투구장식을 하였다. 문장 장식은 단순하게 장식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문장의 유행이 널리 퍼져서 12세기 중엽에는 귀족들은 가문의 문장색만으로 만들어진 군복이나 배우자 가문의 색으로 아프리카나 자수하여 문장 문양이 되어진 군복을 갖추고 있었다. 이 유행은 14세기 초에는 수직으로 나누어진 옷의 좌우 양측에 다른 색이 들어가는 ‘조각색 의복’을 나타나게 하였다. 제복이나 왕실관료들의 의복은 군주의 색상이나 도시의 색상으로 만들어졌다.²⁵⁾

14세기부터 강력한 석궁과 최초의 火器, 旋回砲의 도입으로 짧은 길이의 판금갑옷과 투구가 생겨서 반코트 길이의 쇠사슬 갑옷을 대신하여 입혀졌다. 13세기 말에는 길이가 넓적다리까지 내려오면서 겹옷의 옷감과 가죽위에 작은 판금형태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 것으로 일반인의 pourpoint이나 쪽 맞는 jaque와 같은 형태인 brigandine이 생겨났다. 시민복과 군복 중에 어느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목할 점은 모두 길이가 짧아졌다는 점이다.²⁶⁾

15세기말 스위스 용병의 군복에서 비롯된 슬래시가 독일, 프랑스, 영국 전체에 걸쳐 스페인까지 확대되었다. 군복의 슬래시는 전투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소매와 가슴에 타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pad가 찢어지면서 속이 보이던 것이 응용된 것으로 군복의 형태가 나중에는 안감이 드러나 보이는 fashion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²⁷⁾

15세기말, 1480년경 스위스 용병들의 짧은 doulet과 슬래시되고 퍼프형의 상당히 타이트한 breeches, 넓고 깃털이 장식된 모자와 매우 폭이 넓은 신발을 착용하였다. 밝은 색상의 이 의복에서

한쪽은 줄무늬 한쪽은 무늬가 없는 매우 다양한 Parti-coloured의 스타킹을 착용하였다.²⁸⁾ 1520년대, 독일은 스위스 용병으로부터 무기와 전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도 들여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었다. 그 후 긴 breeches와 cloaks의 사용은 독일 용병에 의하여 퍼졌다. 그러나 16세기 중엽부터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군복을 입었다. 1550년경에는 소형화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들 형태가 보병에게 채택되었다. 이 군복의 경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시민복 정도의 변화를 보여 허리선이 슬림하여졌다. 군복에 사용된 장식은 판금 형태로 만들어졌다. 시민복과 같이 군복에서도 몇가지 특징으로 조개 모양의 코드피스, solerets로 알려진 오리부리 모양의 넓어진 신발, 탄알이 비끼게 하기 위한 허리통 갑옷을 착용하였다.

16세기 이후 일부 군인들은 제복을 착용하였다. 예를 들면 Nuremberg의 황실 근위병으로 징집된 군대에게 붉은 코트를, 1547년 영국의 Norfolk 군주의 소속 부대의 붉은 장식선을 땀 푸른색 슈트, 1562년 덴마크에서 검정모자와 코트 그리고 붉은 색 바지를 입었다. 의복의 이러한 획일성은 하나의 혁신이며 경제와 수월해진 공급품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초기의 제복은 시민복에서 모방되었다. 17세기에 비로소 갑옷을 완전히 버리고 최초의 정규 제복이 나타났다.²⁹⁾ 정규 제복은 각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봉건제도의 영주나 귀족들에 의한 사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그림 6>

흉갑식 갑옷은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무겁고 움직임을 방해하므로 점점 가죽 웨이스트 코트와 hongreline인 buff-jerkin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좋지 않은 날씨에 효과적이었다.

25) Boucher Francois, op.cit., p.188.

26) Boucher Francois, Ibid., p.192.

27) 백영자, 유효순 공저, op.cit., p.246.

28) Blanche Payne, op.cit. p.236, 254.

29) Lawrance Langner저, op.cit., p.286.



〈그림 6〉 1680-1760 년대의 특정 소속복장
(Military Uniform, p.13)

앞 시대의 퍼프들과 패드들은 사라지고 장식들도 더욱 절제되어 사용되었다. 접어 젖힌 부츠가 16세기의 신발을 대신하였다. 벨트와 탄약대는 더욱 단단해져서 사용되는 무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에 잘 맞게 되었다. 화약 무기에 의하여 병사들의 개인적인 재량의 상실은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도 명백하게 나타났다. 훈련을 통하여 발사법을 익히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17세기 말엽부터, 병사들은 하인들처럼 규정된 제복을 입어야만 하였다.³⁰⁾ 제복은 사실상 하인들의 근무복과 똑같은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인에게 고용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된 신분을 나타내었다. 16세기의 병사들은 종종 약탈하여 수집한 다양한 갑옷을 입고 자신의 무공을 뽐낼 수 있었다. 비단이나 벨벳으로 만든 속옷을 자랑하기 위하여 겉옷을 찢는 르네상스의 유행은 군대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병사들은 원하는 대로 멋진 옷을 입고 좋아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휘관들은 더욱 멋진

제복을 탐닉하였다. 병사들이 자신의 군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는 논쟁거리였으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용감하고 신명나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³¹⁾ 그러나 18세기의 병사들은 신명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또한 의무에 의해서 싸워야 하였다. 군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관들은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 시키고 다루었다. 16, 17세기의 자유로운 창병이나 용병이었다면 그런 대접을 감수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군복은 자체적인 통일감과 장식적인 욕구에 의하여 다양하게 발전되어 갔다. 나라마다 고유색의 장식띠 형태인 기장이 나타났고, 장교들은 이를 허리에 두르거나 한쪽 어깨에 걸쳤다. 30년 전쟁동안 각 나라들의 기장의 색은 각각, 독일의 붉은 색, 프랑스의 흰색, 스웨덴의 푸른 색, 네덜란드의 오렌지 색, 덴마크의 붉은 색과 노란 색이었다. 그러나 한 나라 안에서도 부대에 따라 다른 색의 장식 띠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영국의 내전동안 왕당파는 붉은 색의, 의회파는 흰색의 장식 띠를 착용하였다.

신병들도 그들 고유의 상징물들을 사용하였다. 독일인들은 모자 주위에 흰 리본을 매었고, 스웨덴인들은 한 움큼의 짙을 꽃았으며, 덴마크인들은 흰 종이 꽃잎을 꽃았다. 오랜 후에 오스트리아인들은 모자에 잎을 꽃기도 하였고, 스웨덴인들은 짙으로 된 꽃무늬 휘장을 달기도 하였다.

정규 군대의 제복이 도입된 것은 17세기 후반부였다.³²⁾ 1660년 프랑스에서 군대는 민간인 의상의 경향을 따라, 길고 소매 달린 웨이스트 코트 위에 튜닉 형태의 코트를 입었다. 1670년이 되기 직전, 한동안 입혀져 온 이 코트는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되었고, justaucorps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30) Lawarncce Langner저, Ibid., p.486.

31) Lawarncce Langer저, Ibid, p.480.

G. and A. Parker, European Soldiers 1550~1650, Cambridge, 1977, pp.14~15.

32) Jack L. Sumner & Rene Chartand, Military Uniform in Canada, NMC, 1981. p.8.

는 민간인들의 의상에도 채택되었다.³³⁾

1665년경 캐나다 식민 초기에 보여진 프랑스군의 초기 군복 형태를 Carignan-Salieres를 통하여 살펴보면 이 군대는 캐나다 주둔 첫 정규 연대로서 프랑스군의 어느 연대와 마찬가지로 제복을 입었다. 그 당시의 프랑스군 규칙은 군인은 옷과 신발만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장비만이 시민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할 정도였다. 군인들의 옷에서 기본 항목은 외투로 흰색이나 혹은 회색으로 fringe line을 처리한 밤색의 편리한 외투였다. 그 외투는 길고 색깔은 칙칙하였으며 양 옆 엉덩이위에서 낮게 덮개가 있는 호주머니 형태로 무릎 위까지 덮히는 full skirt 형태였다. 소매는 mid-forearm에서 끝나고 그것은 폭이 넓은 회색이나 흰색의 커프스로 처리하였는데 그 커프스는 날씨가 나쁠 때 손목이나 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도록 되어 있었다. 갈색 천으로 짠 단추는 외투의 단 끝까지 달려있고 소매 단추는 회색이나 흰색이었다. 이러한 칙칙한 의상의 유일한 장식은 등근 가죽띠와 어깨 위에 장식된 검은 리본이었다. 연대는 단순하게 넓은 챙이 달린 연한 갈색의 black felt 모자를 썼으며 그 시기에 프랑스 농부들도 비슷한 모자를 썼는데 모자 챙은 전면을 위로 올리거나 때로는 뒤를 올리기도 하였다. 검은 가죽리본은 모자 아랫부분에 달려있고 각 끝에 있는 매듭은 챙의 가장자리에서 밑으로 드리워져 있었는데 원래 이 리본은 군인들의 머리카기에 모자를 조절할 목적이였다. 소매가 달린 긴 속옷이나 조끼는 외투아래 받쳐 입거나 혹은 평복으로 겹에 입기도하고 더울 때는 전투시에도 입었다. 반바지는 외투와 같은 갈색의 천이었다. stocking은 갈색의 serge였고 종종 직물에서 잘라서 썼으며 뜨개질 되었다기보다 함께 재봉이 된 상태였다. stocking은 무릎아래에서 garter로 단단히 매었고 반바지가 stocking 위를 조금 덮도록 되어있었다. garter는 외투에서와 비슷하게 검

은 가죽 리본으로 등글게 매듭을 지었다. 흰 스카프와 커프스가 달린 흰 셔츠를 외투 소매의 밖으로 보이게 함으로서 군인의 복장이 전부 갖추어졌다. <그림 7>



<그림 7> 1660년대 프랑스군 복장
(Military Uniform. p.14)

그 시대의 구두는 끝이 정방형으로 원발이나 오른발이 따로 따로 디자인 되지않아 한 쌍의 구두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군인들은 구두가 균등하게 닳게 하기위하여 양쪽 구두를 바꿔 신는 것이 장려 되었다. Carignan-Salieres의 옷 품목에는 구두를 위한 장식 끈도 포함되어 있다. 그 장식 끈은 레이스에 사용되는 가는 끈을 짜서 만들었다.

이 Carignan-Salieres연대 장교들의 제복은 특정 형태를 갖추었다기 보다 일반 남자들의 옷과 비슷한 제복을 입었다. 장교복은 좀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style을 변형시키는 것이 허락되기도 하였다. 어떤 장교들은 은단추가 달린 외투를 입었고 그 단추 구멍은 은실로 장식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검은색보다 더 좋은 회색모자를 썼다. 장교의 칼은 자루와 손잡이가 은으로 되었으며 칼을 차는 혁대는 silk-

33)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95. p.179.

fringe로 된 흰색이었다. 회색모자는 군인의 지정된 군복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이 훌륭한 연대는 혼란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1666년의 겨울 전쟁동안 이 연대의 기본 복장은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겨울복장으로 부적당하였다. 겨울복장으로는 두건이 달린 capote라는 긴 외투나 over coat를 입었고 보통 군인들도 mitt나 모카신, 털로 만든 방한모, 각반등으로 겨울 방한을 위한 다른 부분적인 것들과 함께 착용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복장이 되었다.

이 때 군인들의 장비는 짧은 칼과 총검을 붙들어 매는 천연가죽 십자 벨트로 구성되었다. 왼쪽 어깨위로 두른 가죽끈은 둥근 자루가 매달려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낫쇠화약통이 매달려 있었다. 유럽군 연대에는 각 중대에 다수의 창병이 있었다. 그러나 musket총으로 바뀐 New Franc의 Carignan-Salieres의 모든 군인들에게는 아직도 이전의 군복 형태가 유지되었다. 약 200자루의 머스켓총이 연대에 보내졌을 때 다른 정규병들은 그 시기 유럽군이 보통 사용하는 화승식 머스켓 총을 사용하였다.

1670년, Louvois의 지시에 따라, 루이가 제시한 모델은 프랑스 전 군인의 제복으로 확장했고, 각 부대는 고유의 색깔을 갖게 되었다. 완성된 제복은 빠른 속도로 전 유럽에 퍼졌다. justaucorps, 긴 코트, 웨이스트 코트, 승마 바지, 벡타이,³⁴⁾ 부츠와 삼각 모자, 보병들이 입은 justaucorps은 열은 회색이었고, 포병들이 입은 것은 로열 블루였다. 기병대의 제복은 더 밝은 색이었고, 접은 단부분은 대조를 이루는 색깔을 넣어 다양함을 주었다. 루이 14세의 통치 말기에는 군대는 여전히 구식의 무거운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사냥 정도에만 쓰이는 것이었다. houseaux, 부츠를 감싸는 가벼운 가죽의 레깅스가 경기병대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군대 제복은 새로운 무기들, 즉 보병총, 총검,

탄약총으로 대두된 꼭 끼는 옷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켰다.

18세기초 유럽 군복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입혀졌던 것들, 즉 justaucorps, 자켓이나 웨이스트 코트, breech, 보병이 신는 레깅스, 기병이 신는 부츠들이었다. 프랑스 장교들이 소속부대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입게 된것은 1698년이 되어서였다. 이러한 상황은 프러시아의 전술이 일반적으로 채택되면서 변화되었는데, 이 전술에는 라이플 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군복을 경량화하는데 기여 하였다. 구식 justaucorps는 점차 짧아졌고, 이의 basques의 길이는 길어져 이를 다시 뒤로 접게 되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잘려지게 되었다. <그림 8> 코트는 점점 꼭 맞게 재단되었으며 장식은 줄어들었고 그대신 주머니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연속적인 변화들을 영국에서 입혀지던 승마복인 승마 코트가 시민의 의상에 끼친 영향과 견주어 볼만 하다.³⁵⁾



<그림 8> 1750년대 캐나다 주둔 프랑스군
(Military Uniform. p.29)

34) 백영자. 유효순 공저, op. cit., p.204, 274, 334.

35) Boucher Francoisw, op. cit., p.330.

1799년 프랑스의 유니폼은 이후 60여년간 지속된 형태를 채택하였다. 이는 짜여진 broadcloth로 된 코트와 자켓과 린넨에 줄이 들어간 breech였다. 여기에는 시민의상과 차이가 있는 것은 넓게 접은 옷깃이었는데 배의 윗부분 정도에서 끝났다. 1690년 이래로 justaucorps위에 차던 벨트는 탄약대로 바뀌었다. 펠트의 삼각모자에도 역시 수정이 가해져 앞끝이 위로 들려졌다.

오랫동안 군복에 사용되던 회색과 흰색은 18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염색되지 않은 자연 울을 사용한 전통의 결과였다. 1779년 이후에는 프랑스 군대의 각 부분들을 위한 색깔이 고정되었다. 79개의 프랑스 보병은 흰 코트와 자켓, breech를 입었다. 포병대와 공병들은 푸른 색을, 전투기병들은 보통 프렌치 블루에, 사모아 색의 웨이스트 코트를 입었다. 반면, 기병들은 1764년 개혁부터 가죽의 길고 딱맞는 겹옷인 cassock라는 녹색의 코트를 입었다.

1793년 국민회의가 정규 프랑스 부대와 국민의 용군의 구별을 없애자 모든 부대의 제복은 국가의 색으로 동일하여졌다. 푸른 코트와 흰 웨이스트, 1804년에 도입된 shako라는 앞에 깃털이 달린 모자가 1806년 의무적으로 착용하였다.

1806년 보병의 제복에 베이지색의 broadcloth 코트가 첨가되었으나 잠시동안 1793년 이전에 입던 흰색의 코트와 8개의 연대마다 차이가 있었던 특징색을 다시 사용하기도 하였다. 6년 후 1812년에는 코트의 형태가 바뀌었다. facing이 똑바로 잘리었고, basques의 길이가 줄어 들었다. 이는 현대의 정장 모닝코트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9> breech는 그 안에서 무릎 아래까지 이르는 안쪽 각반과 함께 된 흰 니트의 trisuers로 바뀌었다. 1829년에는 천 trosuer의 색은 붉은 빛이었다.

1845년에 코트가 영원히 없어지고 튜닉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총돌 총기류를 부싷돌 점화식으로 대체한데 따른 결과였다. <그림 10>

결과적으로 18세기 전제와 19세기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군복과 남성용 시민의상은 어



<그림 9> 1810년대 영국군 Royal군 연대
(Military Uniform. p.61)



<그림 10> 1880년대 캐나다 군복
(Military Uniform.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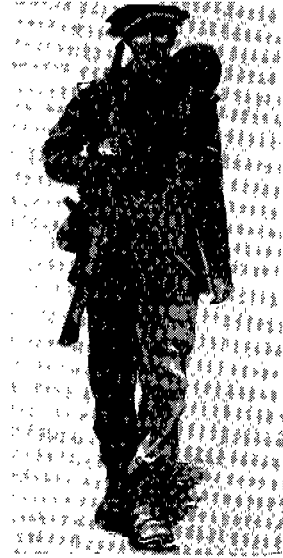
는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시기가 좀 다르기는 하여도 코트의 형태, trosuers가 breech를 대신하였다는 점, shako 모자 또는 높은 모자들이 일치 하였다. 시대에 따라서 영향력이 우세한 쪽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교대 국면은 유럽의 모든 군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19세기말 보어 전쟁에서 영국군은 전혀 색다른 풍토와 기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노출이 잘 되는 군복을 입고 게릴라 전술을 쓰는 현지인과의 전쟁에서 위장과 숨어서 공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군복은 현지 풍토에 맞는 색으로 바뀌게 되었다. 카키색은 인도에서 비슷한 이유로 영국군에 의하여 사용되어진 색이다. <그림 11>



<그림 11> 1900년대 카키색 군복
(Military Uniform. p.121)

그 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느 장소에서나 위장이 가능하고 발달된 무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위장무기를 개발하였다. 그 후 독일과 미국에 의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발달 되었다. 오늘날 위장복은 특수한 지형에서의 전투 즉, 일남전, 걸프전을 통하여 보았듯이 세계의 어떤 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되고 있다. <그림 12> <그림 13> 기능면에서는 전투복의 경우 야전 생활에서 인체의 보호와 전투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디자인과 소재의 연구가 계속되어 기능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장식면에서는 예복은 전통성과 통일감, 상징성을 표현하는 디자인, 색상, 디테일



<그림 12> 2차 대전시 전투복
(Military Uniform. p.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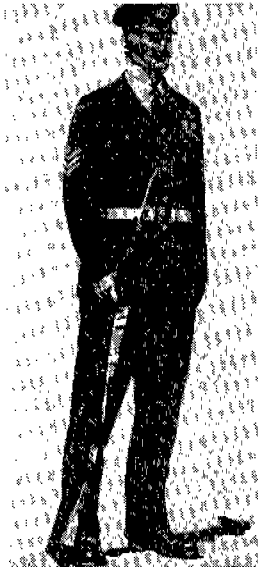


<그림 13> 현대의 위장 전투복
(플래툰, 18호, p.5)

등이 중시되고 있으며<그림 14> <그림 15> 전투복에서도 기능성과 상징성을 위한 상징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복의 상징성을 위한 군장에 대한 것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1903~1972년 Royal 캐나다군 정복
(Military Uniform. p.157)



〈그림 15〉 현대 캐나다 육군 정복
(Military Uniform. p.165)

군복은 자체의 형태, 색, 소재와 더불어 기능성과 장식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가지 군장을 갖추게 된다. 모자, 병과별 마크, 부대 마크, 계급장, 각종 휘장, 요크, 탄띠, 탄입대등으로 기능성을 위한 것과 장식성을 위한 것으로써 군복과 더불어

소속 부대의 전통성, 명예심, 소속감 등을 상징하고 있다. 군복 구성상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켓 : 군복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은 포켓이다. 군복의 포켓은 곁에 덧붙이는 형태로 패치 포켓(patch pocket)이라고도 한다. 이 포켓에는 기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옆에 주름을 잡는데 그 주름이 아코디언의 몸통을 닮았다고 하여 아코디언 포켓이라고도 한다.

에폴렛(epaulette) : 어깨에 다는 장식이라는 뜻에서 견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군복에 견장을 많이 다는 것은 어깨를 넓게 과장하여 위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각에 의한 상대의 제압을 위하여 어깨를 과장하고 그 수단으로 견장을 다는 것이다.

벨트와 기타 악세사리 : 벨트는 악세사리가 아니라 옷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군복의 벨트는 무기를 보관, 관리하는 도구로서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여 군복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벨트 이외에도 군장으로는 군모와 군화가 있고 단추도 일종의 군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 계급장, 훈장, 소속 마크 그 밖에 가방도 군복의 요소가 된다.

브레이드(braid) : 군복에서 사용되는 늑골모양의 장식 끈을 말한다. 의장대나 군악대 장교들의 예복에서 이런 끈 장식을 많이 발견 할 수 있다. 장식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소재, 색, 장식술, 문양등으로 의전용 군복에 사용된다.

Ⅲ. 결 론

이상의 연구에서 군복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무기의 발달과 전술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무기의 발달과 전술의 변화는 군복의 형태와 재질, 색,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전술 변화에 대응하여 군복 초기에는 방어용으로 착용되었으나 전사의 권위가 향상된 시기에는 과시용으로 착용되었고 현대는 최신 무기에 의해서 속전속결의

전술과 전장의 환경을 응용한 전술로 바뀌면서 위장용 군복으로 발전하였다.

즉 군복은 전투와 방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신분의 상징과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투와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중세 이전에는 활, 창등에 대비하는 가슴받이용 갑옷과 투구를 사용하였고 중세에는 기병 중심으로 기사들의 위용과 과시를 위하여 금속제의 거창하고 전쟁 수행에는 비효율적인 갑옷을 입었다. 그 후 화약무기의 출현으로 무기와 전술변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보병 중심의 전쟁으로 바뀌고 무기의 살상력이 커지면서 보병의 기동성이 요구되면서 군복은 가볍고 간편한 것이 요구되었다. 근대전에는 보병과 포병 중심의 전투로서 징집된 다양한 계급 출신의 전투요원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군사학교가 생겼고 조직적인 전술과 덕목을 교육 받은 군인 신분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군복은 자신을 표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군복이 전투력 효과외에도 단결력, 위계 질서, 계급, 소속등을 표현 할 수 있는 의전용 복장과 군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군복의 형태는 일반 남성복에서 전투력과 육의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무기에 대응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변화하였다. 가죽이나 금속을 이용하여 살상의 위협에 대처하고 기동성을 위한 것, 외지 생활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군복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

군복의 색은 초기의 위장과 과시 목적에서 중세 이후 신분이나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군복의 색에 이용되어 근대전까지 군복의 색으로 과시와 위용, 상징으로 표현 되었으나 총기의 발달로 자연색과 같은 위장색, 위장무늬로 바뀌었다.

이상은 유럽 군복의 변화를 무기와 전술변화를 통하여 정리해 보았으며 군복의 형태와 색, 구조가 전쟁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찰하였다. 앞으로는 일반 복식과의 관계, 현재 각 군별 전략상 요구되는 군복의 기능성등을 연구하여 군

복자체에 대한 연구와 일반패션과 군복의 연계성을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강정식, 세계문화사, 형설출판사, 1995.
- 2) 백영자. 유효순 공저,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4.
- 3) 이정옥 외 3인, 패션과 의생활, 형설출판사, 1996.
- 4) 이은숙, 영국 군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6.
- 5) 세계대백과사전, 학원출판공사, 1994.
- 6) 시오노 나나미지 김석희 역, 로마인 이야기 1-5권, 한길사, 1996.
- 7)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0.
- 8)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95.
- 9) 차하순, 서양사 총론, 탐구당, 1994.
- 10) 최영숙, 군복식에 대한 고찰,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11) 플래튼, (주)호비스트, 1-19권 1995~1997.
- 12) Alison Lurie저 유태순 역 의복의 언어, 경춘사, 1986.
- 13) Blanche Payne저, 이종남 외 3인역, 복식의 역사, 까치, 1994.
- 14) Elizabeth B. Hurlok저 박길순 외 1인역, 경춘사, 1990.
- 15) James Snowden저, 유태순 역, 유럽의 민속 의상, 경춘사, 1992.
- 16) John Keegen저 유병진역, 세계전쟁사, 까치, 1996.
- 17) Lawarnce Langner저, 박동준역, 복장의 심리, 유신문화사, 1992.
- 18) Auguste Racinet, Racinet's Full-Color Pictorial History of Western Costume, New York : Dover, Inc., 1987.
- 19) Boucher Francois, 20,000 year of Fashion,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987.

- 20) David Edge & John Miles Paddock, *Arms & Armour of The Medieval Knight*, Bison Group, 1995.
- 21)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Military Uniforms*, London : Dorling Kindersley, 1992.
- 22) Georges Tate, *The Crusades and The Holy Land*,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996.
- 23) Gwynne Dyer, *War*, New York : Crown, Inc., 1985.
- 24) Jack L. Summer & Rene Chartrand, *Military Uniforms in Canada*, NMC, 1981.
- 25)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New York : Thames & Hudson, Inc., 1993.
- 26) Mary G. Houston, *Medieval Costume in England and France*, New York : Dover, Inc., 1996.
- 27) Richard Platt, *Cross Sections Man of War*, London : Dorling Kindersley, 1993.
- 28) Rinker & Heistand, *World War II Collectibles*, London : The Apple Press,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 uniforms

—Based on strategical changes and innovations of military firearm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inform readers of the chronological change of Military Uniform in wars how the features and colors of uniforms have been changed along with the innovations of firearms.

Military uniforms can be put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which are 'Battle wear' and 'Rank wear'. A battle wear features of protection and user friendliness. These features of a battle wear can possibly minimize injuries and help increase the level of battling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 rank wear help distinguish soldiers from their ranks and positions. A rank wear symbolizes the pride that soldiers take in their unit, and by wearing a rank wear, soldiers feel more attached to their colleagues and unit.

Concrete process of military uniforms is as follows.

1. As firearms were innovated, correspondent innovation of military uniforms were also needed, this innovation were in the formstructure, design, color, etc.

2. In the beginning, features of military uniforms changed toward protection, and then after social status of soldiers rised, features changed toward show-off. Finally, as firearms became more fortal, camouflage became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e military uniforms.

3. During war, colors of military uniforms tended to be a means of show-off and camouflage, and while not in war, they functioned as symbol which represent troops and the unit is tradition.

4. Other accessories support the performance and the symbolical function of uniforms.